

보도	2024.11.26.(화) 10:30	배포	2024.11.25.(월)	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권재순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훈 (02-3145-7260)

'24년 하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I 개 요

- '24.11.26.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을 대상으로 「'24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」을 개최
 -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반기 실시하고 있으며,
 - 이번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,000명 이상 대형 GA('24.9월말 기준 48개사)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70명이 참석
-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GA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 및 엄중 제재 예정임을 밝히는 한편,
 - '23년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, 일부 GA의 유사수신 의심행위 등 내부통제 관련 최근 이슈 및 당부사항을 전달

<'24년 하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요>

구 분	내 용
일 시	'24.11.26.(화) 10:30~12:00
장 소	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참석자	소속 설계사 수 1,000명 이상 대형 GA 준법감시인 등(약 70명)

II 워크숍 주요 내용

1 최근 GA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
 - 특히, '23년~'24.8월중 실시한 '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' 및 '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' 현장검사서에서 드러난 부당승환,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
- 향후에도 4대 위법행위*를 비롯하여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,
 - * ①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, ②부당 승환계약, 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, ④특별이익 제공
 -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

2 '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'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모델 개선 등 향후 계획을 안내
 -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(70.0점)으로 전년과 동일하며, 1~3등급은 42개사(60.9%), 4~5등급은 27개사(39.1%)로 확인
- 4~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*할 계획
 - * (예) 평가등급이 낮고, 개선 이행실적 등이 미진한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, 정기·수시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최우선 반영
 - 아울러, 현재 진행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, 소비자 및 보험회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·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적 틀*(Framework) 마련 예정

* (예) 평가결과 대외 공개, 보험회사 운영위험 반영 등

3 내부통제 제고를 위한 기타 당부사항

가.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

- ☐ 최근 일부 GA 및 소속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*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
 - *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
- 금융감독원은 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과 연계된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사할 계획

나.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발생

- ☐ 최근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가 연루된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지속 발생
 -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*하고,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예정
 - * (예) 대리응시 등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, 관련자 중징계
- GA 내부적으로도 관련 행위자에 대해 신분제재 등을 엄격히 조치하고, 임직원 예방교육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

다. 보험상품 허위·과장광고 관련

- ☐ 금소법의 도입으로 허위·과장광고에 대한 제재수준*이 상향되었음에도 민원 등을 통해 보험상품 허위·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 제기
 - * 금소법 제22조(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)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(금소법 제69조제1항)
-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등과 함께 GA의 허위·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

라. 설계사 채용 허위·과장광고 관련

- ☐ 최근 언론보도, 제보 등을 통해 설계사 채용 관련 허위·과장광고*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
 - * (예) '월소득 1,000만원 이상', '익월 최대 1,400%', '보험판매전문회사로 재탄생' 등
-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시 관련 광고심의기준 마련 여부, 심의 활동 등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예정

마. 준법감시인협약제 자체점검 결과

- ☐ 금융감독원은 '24년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약제 자체점검*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철저한 개선을 당부
 - * ('24.1분기) 보험상품 비교설명 적정성, ('24.2분기) GA 설계사 위탁계약서 관련 불공정성
- (비교설명) 비교설명확인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, 비교설명확인서 기재내용 미점검, 미흡사항 보완 미실시 등의 사례 확인
- (위탁계약서) 위탁계약서 설계사 미교부, 위탁계약서의 적법성 미검토,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례 확인

III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☐ (기대 효과)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, 경영인정기보험 불판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,
 -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
- ☐ (향후 계획)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,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체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,
 -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,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